

1. 미시 경제학

올해 미시 경제학은 중요한 단원에 집중하여 출제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을 크게 소비자이론(전반부)과 생산자 이론(후반부)으로 나누어 보자면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이론 : 현시선호 이론, 불확실성하의 선택이론등과 같은 작은 주제보다 굵직한 주제인 무차별 곡선 및 시장 이론에서 집중 출제

- 생산자 이론 : 과점시장, 게임이론과 같은 작은 주제를 배제하고, 생산 및 비용 함수, 완전 경쟁, 독점 등 굵직한 주제에서 집중 출제

미시 경제학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했다면 난이도가 아주 어렵거나 처음보는 주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문제와 계산문제 비중은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각각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말문제

(1) 출제 범위 : 위 내용 참조 -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 난이도 : 기존 기출 대비 평이하였습니다. 50번 러너의 독점력 지수같은 처음 출제되는 개념이 하나 있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3) 총평 : 기출문제에 기반하여 이론을 이해한 수험생에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1-2. 계산문제

(1) 출제범위 : 위 내용 참조 -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 난이도 : 계산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선형 효용함수의 가격효과 분석(49번), 선형효용함수와 결합된 레온티에프 함수(43번)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려운 문제는 매년 일정 수준 출제되고 있습니다.

(3) 총평 : 기존 기출 수준 대비 평이하거나 약간 어렵게

2. 거시 경제학

출제 범위는 기존 기출 문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문제보다 계산문제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말문제

- (1) 출제 범위 : 통화정책, 소비함수, IS-LM 등 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 난이도 : 기존 기출 대비 평이하였습니다.
- (3) 총평 : 기출문제에 기반하여 이론을 이해한 수험생에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습니다.

2-2. 계산문제

- (1) 출제범위 : 국민소득 항등식, 승수효과, IS-LM, 솔로우 균제상태, 성장회계 등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식도 기존에 출제되던 공식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 난이도 : 계산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 (3) 총평 :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산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거나 체감 난이도가 일부 상승하였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및 앞으로의 학습방향

전체적으로 미시 경제학의 난이도는 기존 난이도 대비 평이한 수준이었고, 전년도(34회) 대비는 소폭 상승한 정도입니다. 거시 경제학의 경우 계산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험을 보았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출제기관이 매년 제시하는 공부 방향의 이정표입니다. 매년 마다 강조하지만 기출 문제 분석이 항상 우리 시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혹은 처음 보는 문제는 항상 존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넘기고 항상 나오고, 정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합격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한된 자원인 시험시간을 이용하여 최대의 점수를 얻어내는 시험 전략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시험이 끝난 후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러한 전략 덕분에 원하는 점수를 얻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강사의 방법론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수험생 분들입니다. 올해에도 저의 방법론을 완성시켜주신 수험생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